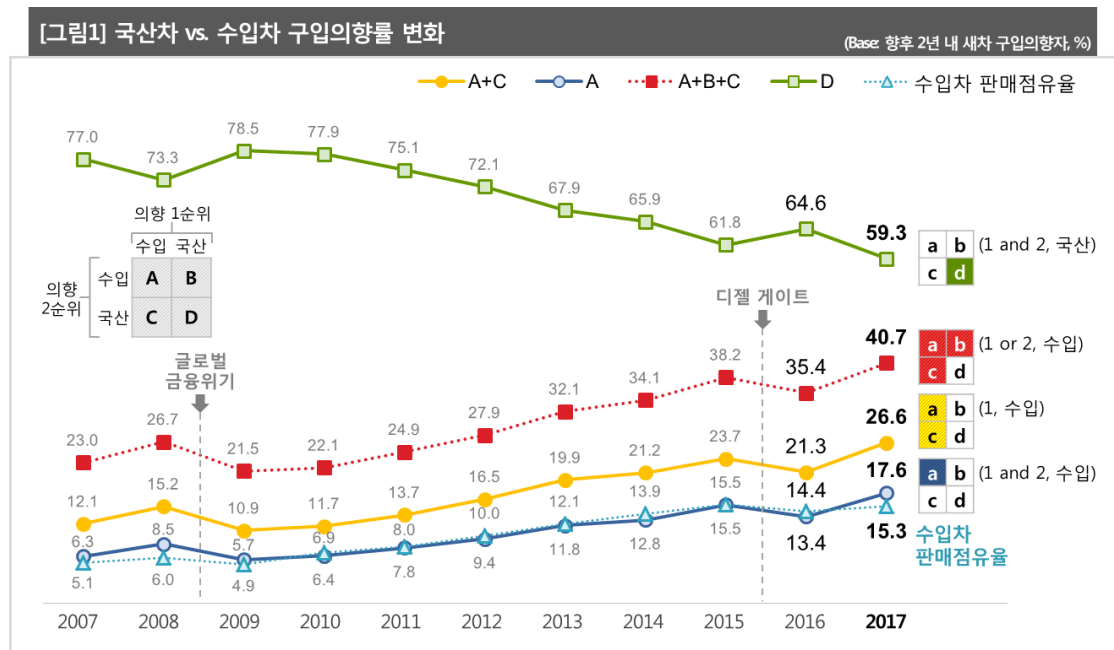


자동차 소비자 리포트 17/18-4 ; 수입차 열풍, 되살아 나나?

- '수입차 살 생각', 디젤게이트 딛고 재상승
- 금융위기시 4년 걸린 구입의향을 회복, 2년만에 졸업
- 수입차 판매 확대에는 좀 더 시간 필요할 듯

수입차는 1987년 시장 개방 이후 초저성장 시대를 거쳐 15년이 지난 2002년도에야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새 기록을 써 왔다. 2015년 9월에 발생한 디젤게이트라는 초대형 악재는 해당 기업은 물론 수입차 전체의 구입의향과 판매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 올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2017년 상반기까지의 결과는 판매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소비자의 구입의향은 상당히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의 약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2001년부터 매년 7월에 실시된 컨슈머인사이트의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에서는 2년내에 새 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는 소비자에게 어떤 차를 살지 1순위, 2순위로 답하게 했다. 2017년 조사결과를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1순위, 2순위 국산만 고려'는 '07년 77.0%로부터 59.3%로 감소했고, 구입예정 1순위로 수입차를 꼽은 소비자는 6.3%에서 26.6%로, 1순위와 2순위 모두를 수입차라고 한 비율은 6.3%에서 17.6%로 증가했다[그림1]. 수입차의 초고속 성장 이면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윤태선 전무 Tel. 02) 6004-7655 Fax 02)543-5984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 www.consumerinsight.co.kr

지난 10년간 수입차의 상승세가 꺾인 적이 2번 있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5년의 디젤게이트 여파다. 금융위기 때 소비자의 수입차 구입의향은 직격탄을 맞았고, 만 4년이 경과한 2012년에야 '08년의 결과를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디젤게이트의 경우는 이와 크게 다르다. 불과 2년 만에 그 충격을 극복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입의향 측면에서는 디젤게이트라는 악재는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입차 전체를 놓고 봤을 때다.

실제 판매는 다소 다를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기시에는 2년만에 판매가 회복되었으나, 금년의 경우는 2년전인 2015년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판매점유율은 '수입차만 고려' 비율과 거의 일치해 왔으나, 금년에 처음으로 의향이 점유율보다 2%p 이상 높았다. 구입의향의 실현은 여러 환경 변수에 따라 촉진되기도, 저해되기도 한다. 판매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벽이 해소되고 있으니 그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제17차 조사(2017년 7월 실시)로부터 나온 것이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윤태선 전무 Tel. 02) 6004-7655 Fax 02)543-5984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 www.consumerinsight.co.kr

◆ 참고 : 「컨슈머인사이트」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개요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

응답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및 2년 내 신차 구입의향자	Total	1,887,946명
표본프레임	컨슈머인사이트 IBP(Invitation Based Panel) 패널 및 주요 포탈 회원 중 할당 후 무선험출	2017년	96,123
표본추출방법	성별/연령 고려 할당 추출	2016년	100,788
자료수집방법	이메일 조사	2015년	105,672
표본 수	연평균 100,000명	2014년	101,821
주요 정보	U&A(Usage and Attitude) 정보 및 CEQ(Consumer Experienced Quality)	2013년	101,701
조사 주기	매년 7월	2012년	95,012
		2011년	97,356
		2010년	106,291
		2009년	91,129
		2008년	95,472
		2007년	105,149
		2006년	106,088
		2005년	139,825
		2004년	171,499
		2003년	118,195
		2002년	129,277
		2001년	126,458

문의: 윤택선 전무 Tel. 02) 6004-7655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Copyright©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윤택선 전무 Tel. 02) 6004-7655 Fax 02)543-5984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 www.consumerinsight.co.kr